

현민 여러분께

2020년 5월 25일, 정부는 전국에서 긴급사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시마네현은 5월 14일, 긴급사태 선언 구역에서 제외된 이후, 감염 방지와 일상생활, 경제활동을 어디까지 양립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현민 여러분께 당부 내용을 조금씩 완화했습니다.

「외출 자숙」요청에 대하여

6월 19일부터 홋카이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도 및 가나가와현(5월 25일 이후에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으로 이동 자숙 요청을 전면 해제합니다.

현 경계를 넘어 이동할 때에는, 행선지의 광역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관광 진흥의 관점에서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는, 6월 19일부터 점차 현외 모객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현시점에서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기에 감염 위험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현민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 ① 「3밀(密)」을 철저히 피한다
- ②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 ③ 「마스크 착용」
- ④ 「손 씻기 등의 손 위생」

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 노래방, 라이브하우스, 헬스장 등에 대해서는, 환기와 소독, 입장 제한을 비롯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조치 등, 점포 측에서 충분한 감염 방지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이러한 곳에 외출하실 때에는 점포 측의 감염 방지대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자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자숙」 등의 기본적인 감염 대책도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동시에 현민 여러분의 생명과 생활 및 현내 사업자를 지키기 위해, 계속하여 국가 및 타광역자치단체, 의료기관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감염 확대 방지, 의료제공체제 강화, 지역경제 회복 등,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니 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17일

시마네현 지사 마루야마 다쓰야